

# 지 자체 소식



## 충북, 제천시 수돗물 PET병으로 생산

우수한 수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제천시수도사업소가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라는 브랜드로 식수생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수장 견학자와 민원봉사실을 비롯해 각종 공공행사와 재해, 재난 비상급수용으로 이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암정수장 여과지동내에 52㎡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30일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시간당 200병까지 생산할 수 있다.

생산품목은 350ml용량의 행사용과 18ℓ 용량의 비상급수용 두 종류로 우선 정수장견학자와 민원봉사실, 공공행사 등에 공급한 후 호응이 좋을 경우 각 읍면동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PET병 수돗물을 원할 경우 수요처는 최소 3일전 전화 또는 FAX를 통해 신청하면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무료 공급하게 되며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수도사업소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첨단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견학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 충남,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 선언

충남도는 부처별 물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3국 7과에서 관리하던 물 관리를 총괄 하는 '물 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해 수질선진을 이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 통합관리 선언식'을 지난 5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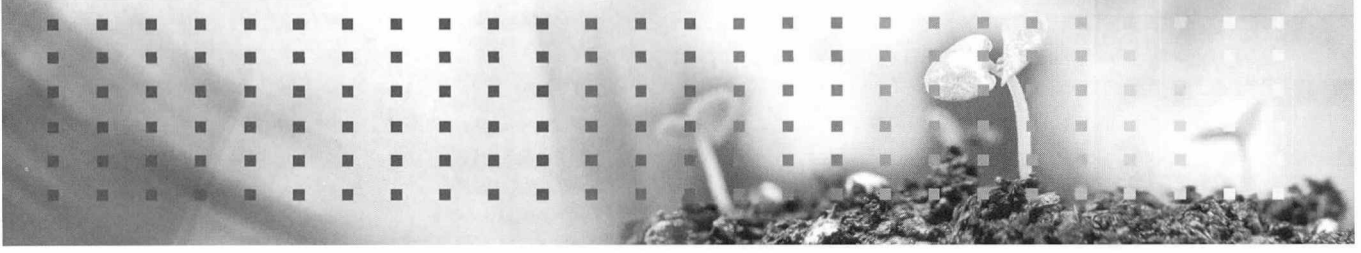
충남도지사,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문규 도의회 의장, 김용억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1부 '물 통합관리 워크숍',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으로 진행됐으며, 제1부 워크숍에서는 물 관리전문가, 유관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옥 복지환경국장이 본부장으로 '물 통합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 행사에서는 물 통합관리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하여 이완구 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충청남도 수질총량센터 이상진 센터장, 한국수자원공사 임성호 수도계획팀장,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 박성철 유지관리팀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성낙선 하천계획과장, 삼교호수계네트워크 김병빈 위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있었다.

도는 충남 수질 II등급 목표달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지속 확충 정비하며 광역 및 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등 호소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등 4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 강원, 관광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도 1/4분기중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12,762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107천명보다 655천명(5.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집계한 1/4분기 관광객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 관광객은 12,43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7%가 증가하였고, 외국인인 323천명(4.9%)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정선군으로 유료관광지 기준 244천명(41.8%)이 증가하였고, 홍천(163천명, 31.1%), 태백(110천명, 26.6%)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지난해 이처럼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이원 스키장 개장, 레일바이크 등의 영향과 겨울축제(산천어축제, 빙어축제)의 성공, 지속적인 도로망(미시령터널, 44번 국도) 개선 등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겨울연가', '외출' 등 도 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 지고 일부 스키리조트(알프스)의 휴업과 동남아(대만) 일부 지역의 방문객 감소,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관광통계는 '관광지 방문객 통계지침'(문화관광부, 2004.6)에 의거 도내 325개소(유료관광지 245, 무료관광지 80)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앞으로 강원도는 문화·생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해 주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신농촌 견학상품 개발, 해외 수학여행단 및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 중국 상해 관광사무소 개설 등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 '외국의 수도권 정책' 자료집 발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외국의 수도권 정책과 기업유치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한 '외국의 수도권 정책' 자료집을 펴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연수단을 구성해 3회에 걸쳐 직접 보고 체험한 외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토대로 제작한 이번 정책 자료집은 글로벌 경쟁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전략 수립 등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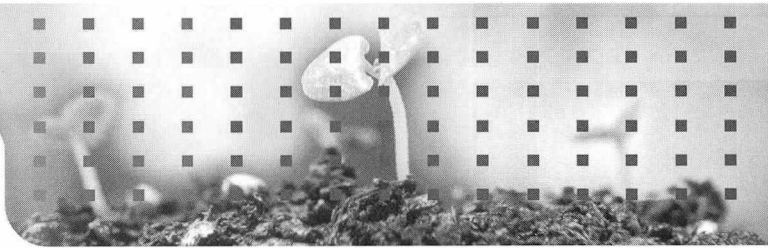
특히 '환경'과 '경제발전'이 상생하고 있는 독일의 수질관리정책과 유럽의 상수원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도 담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불거진 우리의 기업관련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자료집의 1편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수도권 정책을 집중 조명했으며, 2편에는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개발 국가의 기업유치 전략 등을 수록했다.

'외국의 수도권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선진 외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략적 육성정책으로 전환했으며, 분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에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49개 도도부현을 9~12개 도주로 개편하고 3,323개에 달했던 시정촌을 1,803개로 통합을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 광역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76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수도권 규제가 더 이상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사무실 개설허가제(ODP), 공장개설허가제(IDC) 등의 규제정책을 완전 폐지했다.

# 지 자 체 소 식



이후 첨단 비즈니스 타운인 도크랜드를 개발해 1,400 여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런던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파리의 경쟁력 강화 거점 개발에 중점을 두어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의 권한을 강화하고 강력한 분권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환경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로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입지마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의 수질관리 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루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급부상한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신흥 개발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의 무상대여는 물론 심지어 비행장까지 건설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10 발표한 2006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결과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시부에서는 김해시가 최우수, 진해시와 통영시가 우수, 군부에서는 하동군이 우수, 함양군이 특별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도 300백만원, 김해시와 통영시가 각각 200백만원, 하동군 100백만원, 함양군 50백만원 예상)를 지원받게 되고 경상남도의 지방전자정부 수준이 최상위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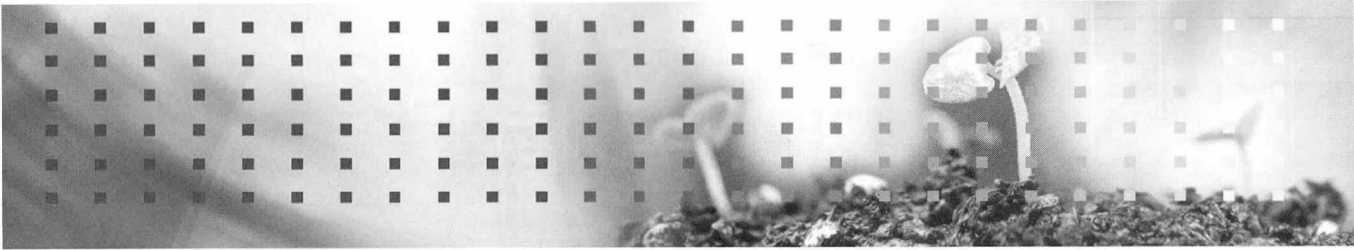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최우수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남 김해시	충북 증평군	서울 서초구
우수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 수원시	경기 연천군	서울 서대문구
			경남 진해시	충북 음성군	서울 강남구
특별상	-	-	경남 통영시	경남 하동군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경남 함양군	인천 동구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이 공동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투입, 변화관리, 활용, 성과, 공통부문의 5개 부문에 걸쳐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시(광역), 도, 시(기초), 군 구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지표 》

구분	지표
투입	정보화신규투자예산비율, 정보화인력비율 등 5개 지표
변화관리	정보화교육수준,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 실적 등 3개 지표
활용	GIS 활용도,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활용도 등 6개 지표
성과	전자정부 추진 우수사례 1개 지표
공통	보안활동 수준 1개 지표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도민 생활 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유비쿼터스 기반의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경상남도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경북,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5월 16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구미전자산업진흥원에서 오영호 산자부 차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체 임직원, 지역주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의 최첨단 전자정보산업을 리더하고 R&D 핵심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미전자산업진흥원' 개원식을 가졌다.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는 경북도가 민선 초기부터 '21C 신경북비전' 등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경북지역을 권역별 특성을 살려 IT, BT, NT, CT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2년부터 6년간의 대역사 끝에 결실을 보게되었으며 총 사업비 865억원(국비 298, 지방비 311, 민자 51, 국비용자 205)을 투입하여 32,359평 부지에 건축면적 6,592평으로 본부 건물인 진흥관, 창업보육성장관, 혁신관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고, 각종 최첨단 연구·실험장비를 200억을 들여 206종을 구입하여 전문인력(석.박사급)의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등 연구기관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

구미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Display, Mobile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집적공간 조성,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

술개발 및 시험생산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구축 및 지역내 전자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본원의 핵심사업이며 또한, 구미전자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경북·대구권의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Hub를 구축하여 기업 부설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을 유지하고, 차세대 핵심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을 활성화하여 전자정보 관련 기업간 지원협력 Network를 구축, 지역내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기업중심의 생산기지중심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고 생산과 R&D기능이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지역 기술혁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관 협력체제 중심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전자정보산업을 종합지원 핵심거점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액 기준 약 0.5%(250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R&D 혁신기관 및 관련산업 단지 내 유치를 통해 대략 1,2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연간 약 2%(800억원)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구미전자산업진흥원과 전문 연구기관인 구미전자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의 최첨단연구소로 육성하여 전자정보산업의 선도적 R&D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자정보산업의 핵심기술 개발로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물성분석·신뢰성시험·공동계측실협센터 및 시제품제작센터 등을 통해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R&D Complex를 조성하여 IT·NT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㉞)